

정부·여당 '그린벨트 해제' 압박...서울시, 방침 바꿀까?

"그린벨트 해제 안된다" 주장하던 박원순 협조 모드로 서울시 "그린벨트, 최후의 보루...국토부와 신중 협의" "또 다른 집값 상승 원인 가능성 있다" 우려 목소리도

정부와 여당이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사를 강하게 밝히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하다 시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실재 서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대중요법'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대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서울시도 동의의 공감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도심 유희지 등을 대상으로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이 관계자는 "그린벨트의 경우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만해야 할 영역"이라며 "향후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공식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중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중립적인 입장은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따른 공여지책으로 풀이된다. 그간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불가 방침을 밝혀왔지만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기존 입장을 고집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그동안 "그린벨트는 시민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다른 공공용지 주택 매입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까지 나선 마당에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김원미 국토부 장관이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다.

김 장관과 국토부는 신촌희망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했고 박 시장은 이에 반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가 김 장관과 국토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무게추가 급격히 김 장관에게 쏠리는 형국이다.

이해찬 대표 발언 이전부터 박 시장은 집값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곤란한 처지였다. 국토부가 서울 집

값 급등의 원인을 박 시장의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발인과 강북 우선 투자전략으로 돌리면서 입지가 좁아진 탓이다.

이로 인해 박 시장은 서울 집값에 영향을 줄까봐 13일로 예정됐던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발표도 늦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시는 정부 여당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제대로 된 지적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또 다른 개발 호재로 인식돼 인근 부동산 시장을 재차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김원호 서울취재본부장



폭우에 떠내려온 쓰레기 5일 경기 남양주시 한강 상류 팔당댐 인근에 폭우로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가득하다. 한국수력원자력 팔당사업소와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상수도 보호를 위해 팔당댐에 쌓인 약 1000t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이번 주말 서울광장은 야외도서관... '서울 북 페스티벌'

서울 25개 자치구 공공도서관 사서들 엄선한 책 소개



서울시는 8~9일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최대 규모 책 축제인 '2018 서울 북 페스티벌(Seoul Book Festival)'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11회째를 맞는 이번 서울 북 페스티벌 주제는 '말과 글이다. 서울 엠보팅(시민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을 통해 시민이 직접 주제를 선정했다.

축제도서관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엄선한 책이 소개된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라는 각 주제별 도서를 서울광장 내 마련된 야외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다.

쓰기 무대에서는 말과 글의 대담, 북 콘서트 등을 통해 좋은 글

을 쓰는 방법을 알아본다. 8일 누리소통망(SNS) 시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하상욱의 강연이 열린다. tbs TV책방 북콘서트를 통해 tvN 김지운의 달콤한 19'의 김지운 작가와 재즈 보컬리스트 유사람을 만날 수 있다. 9일에는 영화 '덕혜옹주'의 원작자 권비영 작가로부터 시나리오와 소설의 차이를 배운다.

읽기 무대에서는 다양한 낭독무대로 낭독의 매력에 빠져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8일 오후 '달빛극장'을 통해 아동극과 낭독극이, 9일에는 어르신낭독극 '그림책 곰씨의 의자'가 무대에 오른다.

듣기 존에서는 말과 글을 주제로 랩, 판소리 마임 등 공연이 무

대에 오른다. 8일에는 마임공연, 동화구연가의 동화극, 판소리 공연극이, 9일에는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의 박준 작가와 함께 하는 고등 래퍼 공연과 '책은 여는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말하기 존에는 함께 말하고 쓰고 읽고 만드는 복합 체험공간이 조성된다. 시 쓰기 체험 '시 필사', 혼민정을 이해본 인쇄 체험 '한글의 탄생', 나만의 독서연필 만들기 등 시민참여행사가 운영된다.

독서동아리의 밤은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다. 책과 함께 하는 독서동아리들의 활동모습을 볼 수 있다. 9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하는 독서토론이 벌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서관 누리집(lib.seoul.go.kr)과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eoulmetropolitanlibrary/>)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전화(02-2213-0224)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서울 북 페스티벌은 올해로 11회째 개최되는 서울시 최대 규모의 책 축제다. 올해는 서울의 대표도서관 서울도서관과 25개 자치구 공공도서관이 모두 참여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주말, 서울광장을 방문해 독서의 계절 가을의 시작을 느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호 서울취재본부장

서울시-서울경찰청, 아동학대가정 함께 찾는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폭력·학대·방임 등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함께 찾아내기 위해 합력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오후 4시30분 서울시장에서 '위기 가정 통합지원센터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자치구의 부구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다.

시와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서울지방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 제도, 자치구의 '통합사례관리사업'을 결합해 자치구별로 '위기 가정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10개 자치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도봉구·노원구·서대문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내년 전체 자치구로 확대한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된다. 기존 25개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사례관리사와 경찰서별로 배치돼 있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신규 채용되는 상담사 등 모두 4~9명이 한 공간에서 위기가정을 지원한다.

11·117을 통해 경찰에 위기가정이 신고되면 학대예방경찰관이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센터에 공유한다. 상담사는 전화 초기상담을 통해 위기가정 상태를 파악한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초기상담 정보를 토대로 각 가정을 방문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다.

센터는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을 연결해주거나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연계한다. 또 사후점검을 맡아 위기가정 내 문제가 재발되지 않

도록 관리한다.

시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는 집안사정으로 치부돼 타인의 발견이나 개입이 어렵고 순찰 등 경찰의 전방적 수단으로는 법외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 내에 살아간다는 점에서 이혼·영구적 격리가 없는 한 폭력이 재발할 수밖에 없고 폭력의 강도가 커지면 학대가 심해진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자치구 '통합사례관리'만으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찾고 가정별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전문기관 연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법·제도 보완 복지전달체계 효율성 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 서울취재본부장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